

“난 못죽어 인제”

저는 구로동에 사는 구로국민학교 삼사학년 용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별집에 삽니다. 한 집에 오십오구가가 사는 데 방밖에 일, 이, 삼... 번호가 써 있는 별집입니다. 화장실은 동네 공중 변소를 씁니다. 엄마는 술집에서 일하고 할머니는 취로사업장에 가서 돈을 버시고 아버지는 청송감호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보고 아버지는 죽었다고 그래요. 너무나 가난한 우리 집은 제 도시락도 못짜가는 날도 많습니다. 엄마는 술 취하면 “이 애물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하시면서 우실 때가 많아요. 친구들이 우리 엄마보고 ‘작부’라고 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 매일 술먹고 울면서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더운 적이 참 많았어요.

부활절날, 저는 엄마를 미워한 것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만 와락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어요.

그 날 교회에서 전 계란 두 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갖고와서 할머니와 엄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 전도를 했어요. 몸이 아파 누워 계시던 엄마가 화난 목소리로 “홍, 구원만 받아서 어떻게 사니.”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오십만원을 올려 내라는데 구원만 말고 오십만원만 주면 내가 예수 믿지 말래도 믿겠다.”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어린이 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열렸는데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 보내 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그대 같이만 살아 준다면 오월달은 진짜 내 세상이 될 것 같다고 썼습니다.

그 날, 제가 일등상을 타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손님이 그 날 찾아 오셨습니다. 글짓기 심사위원장을 맡으셨던 동화작가 선생님께서 물어 물어 우리 집에 오신 것입니다. 대접할게 없다고 할머니는 동네 구멍가게에 급히 가서 사이다한 병을 사오셨습니다.

동화작가 선생님은 똑똑한 아들을 두셨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일 나가시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술 한잔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동화 선생님은 대접은 이 다음에 받겠다고 하시면서 선생님께서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 가셨습니다.

밤늦게까지 그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던 저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동화책 갈피에서 수표 한 장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수표였습니다.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는 ‘세상에 이럴수가...!’ 하시며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애, 용욱아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십만원을 주셨구나” 하시면서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교회에 가겠다고 일교에 화장을 조금 하고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용욱아, 일른 편지 써라. 엄마가 안 죽고 살아서 선생님께 오십만원 꼭 갚아 드리겠다고. 난 못 죽어 인제!”라고 하시는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교회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99교회표어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1권20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1999년11월 28일
☎262-3717/021-292-1639.☐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특시님!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담이 죄지을 것을 아셨을텐데요?

- Q) 왜 하나님은 인간이 죄 지을 것을 아셨으면서도 그대로 방치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들이 죄지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셨을까요?

A) 하나님은 인간이 죄지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면 왜 죄지을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는가의 질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건너갈 때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멈추어 서서 파란 신호등이 켜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만일 빨간 불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건너간다면 아마 차에 치어 죽을 것입니다. 신호등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맺어진 하나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잘 지키면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잘 지키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시고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약을 준수할 때 우리에게 그 계약은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오지만 파기 할 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지를 지닌 책임적 존재로 지으셨음을 말해 줍니다.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창조 속에서 죄를 범할 자유와 범하지 않을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껴 볼 수가 있습니다.

# 주 일 예 배

오후 1:30

## 영 광 송

Gloria

"Calvary"  
1절:예배반주. 1.3절:다같이

다 같이

##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 \*찬 송

Hymn

46 장

다 같이

##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19 (시 84편)

##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 찬 송

Hymn

495 장

다 같이

## 기 도

Prayer

최윤호 집사

##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사도행전 7:54-60

## 특 송

Praising

##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아 동 부

## 설 교

Sermon

'서서 계신 주님'

김성국 목사

## 설교후 기도

Prayer

## 찬 송

Hymn

483 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인 도 자

##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 \*위탁의 말씀

인 도 자

##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천교실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계속 됩니다)

일자	기 도	헌금봉헌	예배안내	tea time
7	서백화	이지훈	이지훈	여선교회
14	이지훈	송정섭	송정섭	남선교회
21	방성주	한건한	한건	청년부
28	최윤호	서백화	서백화	여선교회

'99년도 교회표어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실천사항>

\*신 앙: 기초성경공부이수

\*주일예배: 정장으로 예배참석

\*생 활: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하지도 맙시다

<등록규정>

\*3주간 예배,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교 회 소 식

- 매월 정기심방일정서를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초성경공부 2기 모임(3회)  
\*시간: 수요일 저녁 7:30  
\*장소: 교회당
- 서울 갈보리교회 박조준 목사님께서 설교 tape 100개를 보내 주셨습니다
- 교회도서실 운영을 담당하실 성도의 자원을 기다립니다.
- 12월 교회행사

일	행 사
24일	성탄축하 저녁송(9:30pm)
25일	성탄절 예배(자정) 성탄축하 야외친교
26일	직분자 임명
27-31	송구영신 새벽기도 (6:00am)
31일	새천년 맞이 예배(11:30pm)

## 6. 12월 예배위원

일자	기 도	헌금봉헌	예배안내	tea time
5	송정섭	최윤호	최윤호	여선교회
12	방성주	송정섭	송정섭	남선교회
19	남순애	서백화	서백화	청년부
26	지윤수	한건	한건	여선교회

## 7. 2000년 신앙생활 목표와 표어 "주일중심에서 매일중심으로"

\*실천사항

- 개인: 매일 성경 1/2장 읽기
- 가정: 월, 토 가정예배
- 교회: 화요(불의 날)새벽기도